

#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amily Values and the Resource Factors Provided by Parents on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 Married Men and Women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임선영\*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박주희\*\*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enary  
*Associate Professor* Im, Sun Young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Park, Ju-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family values and the resource factors provided by parents on marriage intention among men and women in their 30s and 40s who have never married. The study participants were 300 never-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30s and 40s living in Seoul and its suburbs. The participants were chosen via purposive sampling.

The study results are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ubjects' family values and the resource factors provided by parents, both family values and the resource provided factors by parents showed higher scores than the median. Subjects had higher scores than the median score in regards to marriage intention, indicating

\* 주저자: 임선영(im87@korea.com)

\*\* 교신저자: 박주희(pjh@sungshin.ac.k)

that they had a greater intention to marry.

Seco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amily values, and the resource factors provided by parents on marriage intention. As a result, age, the need of marriage and gender-role attitudes prevalent in family values, and the economic resources among the resource factors provided by parents had significant effects on marriage intention. Thus, the older the age of the subjects, the more traditional the view of marriage and gender-role attitudes, and the greater the amount of economic resources provided by parents, the greater the subjects' intention to marry.

Key Words : 결혼의향(marriage intention), 가족가치(family value), 부모의 자원제공 요소 (resource factors provided by parents), 미혼남녀(never-married men and women).

## I. 서론

최근 우리사회의 급격한 가치관과 경제적 변화는 다양한 사회 변화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의 하나로 결혼기피 현상을 들 수 있다. 결혼은 인간의 발달 과업중 성인기에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을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에 더 나아가 ‘결혼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기피 현상과 함께 성인자녀가 성인기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생애주기 및 가족구조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혼인건수의 감소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통계청(2010)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혼인은 31만 건(쌍)으로 2008년 32만 8천 건보다 1만 8천 건(5.5%)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미혼 남녀의 초혼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다. 남성은 평균 31.9세,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9.1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이는 30년 전의 1981년 남성 26.4

세, 여성 23세에 비하여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의향에 대하여 경제학자인 Becker(1973)는 ‘결혼의 경제학’ 이론을 적용하여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결혼의 효용이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취업으로 인해 기대소득이 증가하면서 결혼할 경우 포기해야 할 소득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결혼을 미루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젊은 남녀들의 결혼의향은 결혼의 혜택과 비용의 경제적 효용이 반영된 합리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지만 미혼남녀들의 결혼 기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와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혼기피와 결혼감소로 인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저출산 현상을 들 수 있다. 최근 출산을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규명되는 뚜렷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가 만혼화이며, 만혼화는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가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이에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젊은 세대의 만혼 및 비혼의 사유 및 결혼에 대한 가치를 더욱 정

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김혜영·선보영, 2011). 젊은 세대 남녀들의 결혼지연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의 문제는 미혼성인의 부모 의존성을 들 수 있다. 대다수의 미혼남녀들이 그들 부모의 심리적·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결혼이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즉 미혼 남녀들이 결혼으로의 진입이 늦어지면서 부모의 심리적·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한 부모의 심리적·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결혼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순환적 결과가 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의존성 심화는 부모세대의 노후생활을 저해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심각한 노인 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젊은 세대의 만혼 및 비혼의 문제는 사회 및 가족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강조됨에 따라 미혼자들의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 및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결혼의향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요인이 결혼의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다루어 왔다. 구체적으로 이삼식·정운선·김희경(2005)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미혼자들이 결혼을 연기하는 이유는 고용 및 소득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결혼비용의 증가, 가부장적인 결혼생활,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을 큰 이유로 결혼을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인에 주목한 것으로 개인 또는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규범적 자원 즉 가족가치관의 변화 역시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가치관 변화가 결혼의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이삼식, 2010). 이와 관련해 진미정·정혜은(2010)은 결혼이 개인적 선택 영역으로 전환될수록 가치관이 행동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면 가족가치관은 결혼의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Sassler & Schoen(1999)도 결혼의 필요성과 가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결혼할 의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혼인 적령기의 미혼자가 결혼을 연기하는 이유는 규범의 변화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근래 전반적으로 취업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결혼을 진행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점도 중요한 이유이다(고선강·어성연, 2013). 즉 결혼비용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신혼주거비용의 부담 등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독립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어렵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부모의 자원 제공 여부는 특히 경제적 자원 특성과 결혼의향에 초점을 두고 일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유홍준·현성민, 2010; 고선강·어성연, 2013). 그 외에 결혼의향과 부모의존 현상에 주목한 일부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김정석, 2006; 이영분 외, 2009; 서지희, 2009; 홍은영, 2011). 따라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현상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해를 위해 부모로부터의 다양한 자원 제공 여부를 포함하여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과거와는 달리 미혼의 연령대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대한 연구 또한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20대 이상의 미혼남녀에 집중되어 있어 평균 초혼 연령을 넘어서는 30대 이상의 미혼남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미혼의 연령대 비중에서 30대 미혼 인구가 전체 미혼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4.2%에서 작년 7.9%로 2배에 가까운 3.7%포인트 높아진 점(서울시 통계웹진, 2012)을 볼 때 30대 이상의 만혼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의향과 관련 요인들의 분석은 보다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혼자의 결혼의향이 부모세대로부터의 자원제공과 어떠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경험적 현상을 학문적으로 입증해 보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30대 이상의 만혼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가족가치관 및 부모의 경제적·정서적·도구적 자원 제공 정도를 살펴보고 각각이 결혼의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근대적 가족가치관이 결혼의향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미혼자 특히 만혼자의 결혼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구축 및 결혼 및 가족정책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가치관

#### 1) 가족가치관의 개념

가치관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컫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이나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태길, 1996). 즉 가치관은 인간의 삶속에서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가족 가치관이란 가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관점이나 기준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진미정·정혜은 2010). 한편 가족가치관은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태도이며 가족에 관한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관념체계(박혜인, 1991)로 정의하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를 내포하고 있는 가족가치관은 그 포괄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되고 있다.

옥선화(1984)는 가족을 형성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배우자 선택과 결혼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분석하였고, 김경신(1998)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여성부(2003)는 결혼관, 성역할태도, 부모부양태도 등으로 나누었다. 장혜경외(2005)는 ‘가족과 성역할에 대한 국제비교조사 연구(ISSP: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를 통해 가족가치관을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태도,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 가치관은 다양한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성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가족가치관은 결혼관, 성역할 태도 및 자녀관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 2)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

한편 가족가치관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삼식(2006)의 연구에서는 미혼남녀 20~44세의 결혼관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 20~44세 중 71.4%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한다’는 태도는 29.4%였다. 미혼여성 20~44세의 경우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한다’는 태도는 12.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이 결혼에 대해 훨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관이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 밖에도 김혜영 외(2007)의 연구에서는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자들이 이혼자들이나 사별자들에 비해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동조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가족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기수(2005)는 비교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가족가치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가족가치관의 질문을 통해 결혼의식이 약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 여부나, 연령대 등 다양한 인구사회적 배경에 따라 가족가치관은 근대성과 전통성이 공존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족가치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부모의 자원 제공

### 1) 자원의 개념

자원의 일반적 개념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과 비인적 자원(nonhuman resources)으로 분류할 수 있다(Deacon & Firebaugh, 1998). 가족기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은 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의미하며, 인간 안에 내재하여 시간자원의 사용과 같이 인간과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을 말한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은 가족성원들 간의 도구적 자원(Instrumental resources)과 정서적 자원(emotional resources)을 포함한다. 도구적 자원(Instrumental resources)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가족원들을 위한 돌봄이나 가사운영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심부름, 세탁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이 소유한 시간과 에너지와 같은 자원을 말한다(김영순, 2013).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자원(Instrumental resources)제공의 요소들은 자녀에 대한 돌봄이나 가사를 돕는 활동들이다. 또한 정서적 자원(emotional resources)은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줄여주는 친밀감과 같은 관계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정서적지지 등을 들 수 있다.

비인적 자원(nonhuman resources)은 유형적인 것으로 인간에 외재적이고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가 가능한 자원으로 측정 가능한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을 들 수 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은 생활비, 사업자금, 주택관련 자금, 내구재 구입, 단순증여 등을 위한 금전이나 물질들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acon과 Firebaugh(1998)의 분류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 2) 부모의 자원제공의 특징 및 변화양상

본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자원제공이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도구적·정서적·경제적 자원을 제공받고 생활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한편, 부모로부터의 자원 제공의 연구는 주로 부모와 자녀세대 간의 자원이전(김영순, 2013) 또는 호혜성(고선강, 2011) 차원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미혼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원제공에 초점을 둔 연구를 거의 없다. 부모의 자원제공은 주로 부모에 대한 의존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은데(이영분 외, 2009; 홍은영, 2011), 대체로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주거나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모의존 현상은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으로 각 나라마다 그들을 정의하는 용어도 다소 냉소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는 'parasite single(기생독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山田, 1999),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사회에서는 '긴 세대'라는 의미의 'twixter' 또는 안정적인 직장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 집으로 돌아와 생활한다는 의미의 'boomerang kid'로 표현하기도 한다(이영분 외, 2009).

흔히 성인됨의 기준은 각 사회마다, 그리고 시

대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으로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연령이지만 결혼을 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부모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으며 살아가는 성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초혼 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결혼이 늦어지며, 더불어 독립하는 시기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시에 독립시기가 늦어지며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홍은영, 2011). 또한 최근 경제 위기 이후 높은 청년 실업률은 미혼 남성의 결혼시기 연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홍준·현성민, 2010). 山田(1999)는 원하는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유한 계급의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결혼에 대한 의지 또는 기피와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3. 결혼의향

#### 1) 결혼의향의 개념

결혼의향은 결혼에 대한 선택의 의미나 결혼에 대한 가능성의 의미로 접근해 볼 수 있다. Stein(1981)에 따르면, 결혼의향의 의미는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았다. 따라서 결혼의향이란 일정 연령까지 선택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며 또 다른 연령대에서는 결혼의향이 결혼의 가능성으로 비취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홍은영(2011)도 결혼의향을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하여 첫째는 결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결혼에 관한 선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접근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결혼의향의 의미는 결혼을 한 적이 없는 미혼자들이 일생동안 결혼을 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결혼의향의 변화양상

결혼의향의 경향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 간주되고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안정이 우선시 되었으며, 남성에게는 가족공동체의 계승 발전을 위해 결혼은 필수적이었고 여성에게는 새로운 가족공동체에 참여하고 가족공동체를 존속시켜 나가기 위한 재생산의 의무가 주어졌다(최재석, 1983).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특히 여성의 역할이 다양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Becker(1973)은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의식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은 그들 결혼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하며 여성들은 직업과 결혼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고 느끼면 기꺼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커리어를 선택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남녀 모두에 있어서 기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면서 독신을 다양한 형태의 생활방식의 하나로 여기고 선택하려는 경향도 함께 많아지는 추세이다.

#### 3)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1) 가족가치관과 부모의 자원제공

가족가치관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먼저 진미정 외(2010)은 최근 지난 5

년 사이 남녀 모두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동조할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빨랐으며, 여성은 혼전동거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당위적 규범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된 반면,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와 관련해서도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선희(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가치관(결혼의 필요성), 가족 가치관(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부부관계의 가치관(성평등성)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의 가치인 부부관계 가치관의 경우 부부관계의 평등성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미혼여성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가족가치관의 각 하위 영역별로 변화 정도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하위 영역별로 전통적 또는 근대적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혼세대의 결혼의향에 대한 가족가치의 영향은 여전히 이들 간의 인과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결혼의향에 가족가치관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 분석에 유용성을 주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자원제공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들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미혼 남녀의 소득으로 결혼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결혼으로의 진입에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이 상당히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Goldscheider & Goldscheider(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자원은 부모가 자녀를 독립시켜줄 자금제공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늦은 나이까지 집에 머물도록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를 독립한 성인자녀들이라도 심리·정서적으로도 부모의 개입과 영향 및 지원을 끊임없이 받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자원제공 측면에서 도구적 자원·정서적 자원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적·정서적·경제적 측면에서 부모에 대해 얼마나 도움을 받는 지에 초점을 두고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 (2) 기타 관련변인들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결혼에 대한 태도, 선택 등을 통해서도 규명되어 왔다.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연령, 성별, 교육, 소득,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논의되었다.

### ① 연령

연령과 관련해서는 Lee 외(2006)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삼식(2006)도 고연령층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결혼시장에서 선택되지 못한 미혼남녀가 결혼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일본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20~44세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생활의식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결혼 의욕의 규정 요인을 검토한 釜野(2004)는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혼 의욕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혔다. 이 밖에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의향에 대한 연령의 효과가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미혼남성에 비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여성이 상대

적으로 남성에 비해 연령과 결혼 의향과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연령 규범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서지희(2009)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결혼의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령은 결혼적령기라고 여겨지는 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 ② 성별

성별 또한 결혼의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기수(1999)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일반적이라고 여기는 생애과정을 거친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생애과정을 거친 사람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것은 남성은 사회에서 통념상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생애과정 규범이 중요한 반면, 여성은 결혼적령기라는 연령 규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승권(2003)의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9.1%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연구에서도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71.4%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두섭 외(2007)는 통계청의 1998년, 2006년 자료를 비교하여 결혼의 필수성 보다는 선택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 선택에 대한 허용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 ③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들은 교육기간의 연장이 초혼 연령의 증가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한경혜 1993; 이삼식 1993; 은기수 1995, 1999). 그 이유와 관련해 첫째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혼 지연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교육수준은 결혼진입에 중요한 경제적 지위 획득을 가능하게 하여, 결혼으로의 진입이 용이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도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미혼자들일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연구에서 아시로 나오히로(1994; 이상준 2007, 재인용)는 일본에서 독신 여성이 늘고 만혼이 많아진 이유로 여성의 고학력 성향을 들었다. 여성의 고학력화는 사회 진출을 통해 여성에게 안정된 소득원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력이 높아져 소득과 사회적인 능력을 갖게 된 여성은 결혼에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윤영효 1994). 이상준(2007)은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고학력화는 한국사회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이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독신 생활을 선호하게끔 여성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연구들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결혼으로의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수진 2005; 김정석 2006; 서지희 2009). 그것은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확보한 여성이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결혼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성이 존재함과 동시에 아직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여성이 공존하기 때문으로 뚜렷한 패턴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④ 소득

소득과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선강 외, 2013; 山田, 1999). 취업여부는 남성의 경우 더욱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uth, 2001; 이삼식, 2006). 山田(1999)는 일본의 경우 전후 부모세대에서 '중류사회'가 실현되고 경제적 생활수준은 높아진 반면 경제 호황기에 자란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젊은 남성의 평균 수입으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고 중류생활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결혼적령기가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30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적 자원을 연구한 고선강 외(2013)의 연구에서도 미혼남녀의 자산의 측면에서 미혼남성의 경우 주택 소유 여부는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남성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남성에 비하여 결혼의 의향이 높았으며 이는 결혼결정에서 남성의 경제적 부담과 부모의 자산과의 연관성을 내포하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과 자산을 포함하는 경제적 자원은 결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청년층의 비정규직화의 증가 및 경제상황의 악화 또한 결혼의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 ⑤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와 동거여부를 통해 결혼의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이영분 외(2009)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부모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젊은 성인이 있는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의 약 34%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약 27%는 부모의존 독신성인이 2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山田(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히구치(1999)의 연구도 부모와의 동거가 유배우

울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이수진 2005 재인용). 이와 같은 미혼의 증가는 부모의존 독신성인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혼성인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방편이 편해지고 결혼의 이점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결혼의향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미혼율을 높이는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와의 동거가 결혼의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일본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김정석 2006; 서지희 2009).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결혼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부모세대로부터의 영향 때문에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더 받아 결혼의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부모의 보수적인 결혼관의 영향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지희 2009). 김정석(2006)의 연구에서는 미혼남성들은 단독가구 거주가 결혼의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여성들의 결혼의향에는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재 독립가구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 동거여부는 외국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미혼남녀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제공 요소,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미혼남녀의 가족가치관과 부모의 자원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조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이상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9월1~15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330부를 배포하여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300부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들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55.0%, 여성이 44.0%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0대는 69.1%, 40대는 30.9%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이 34.3%, 100~200만

원 미만이 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조사도구

### 1) 종속변수: 결혼의향

종속변수로 사용된 결혼의향은 ‘귀하는 결혼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결정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 2) 독립변수

#### (1)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를 진미정 외(2010)가 재구성한 도구를 활용하여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으로 구성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가치관의 결혼관은 2문항으로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특성       | 구분      | 빈도   | %     |
|----------|---------|------|-------|
| 성별       | 남성      | 165  | 55.0  |
|          | 여성      | 135  | 44.0  |
| 연령       | 30대     | 206  | 69.1  |
|          | 40대     | 92   | 30.9  |
| 교육수준     | 고졸      | 84   | 28.6  |
|          | 전문대졸    | 45   | 15.3  |
|          | 대졸이상    | 165  | 56.1  |
| 월 소득     | 100만원미만 | 7    | 2.3   |
|          | 200만원미만 | 63   | 21.8  |
|          | 300만원미만 | 126  | 41.6  |
|          | 300만원이상 | 104  | 34.3  |
| 부모와 동거여부 | 동거      | 164  | 54.7  |
|          | 비동거     | 136  | 45.3  |
| 전체       |         | 300* | 100.0 |

\* 무응답으로 사례수가 다름

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5점)’에서 ‘하지 않는 게 낫다’(1점)까지 5점 척도 1문항과 혼전동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문항에 ‘전적으로 찬성(1점)’에서 ‘전혀 찬성하지 않음(5점)’의 1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다. 가족가치관의 자녀관은 총3문항으로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묻는 문항으로 하여 ‘결혼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자녀는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이 덜 외롭다’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자녀 필요성 문항은 역환산된 점수로 사용하였다. 가족가치관의 성역할관 변수는 1문항으로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전적으로 찬성(5점)’에서 ‘전혀 찬성하지 않음(1점)’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가치관의 각 총 점수는 중간점수 3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경우 전통적 가족가치관으로, 낮은 경우는 근대적 가족가치관의 성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가족가치관은 .78로 하위 영역인 결혼관 .64, 성역할태도 .79, 자녀관 .85로 나타났다.

## (2) 부모의 자원제공

부모의 자원제공 조사도구는 중년기 부모와 성인자녀의 생활교류를 통해 부모자녀간의 상호 의존성을 측정한 김태현·임선영(2005)의 도구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총 6개문항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모로부터 도구적·정서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적 자원제공은 ‘부모로부터 아플때 돌봄을 받음’, ‘빨래나 식사등 가사일의 도움을 받음’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서적 지원은 ‘부모로부터 감정적 이해를 받음’, ‘부모에 대해 친밀한 느낌을 받음’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제적 자원 영역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음’, ‘부모로부터 일시적인 큰 지출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음’의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구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자원제공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부모의 자원제공은 .80으로 하위 영역별로 도구적 자원 .78, 정서적 자원.68, 경제적 자원 .88로 나타났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부모와의 동거여부로 구성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SPSS 18.0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제공 정도, 결혼의향을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였다. 미혼자의 결혼의향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제공 요소, 결혼의향의 전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가족가치관, 부모 자원제공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표 2>, 가족가치관은 5점 만점의 3.75점, 부모의 자원제공 5점 만점의 3.12로 나타나 모두 중간값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하위 영역별 점수를 보면 가족가치관에서 자녀관 3.67점, 결혼관 3.54점, 성역할태도 3.1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원제공 요소에서는 정서적 자원 3.23점, 경제적 자원 2.98점, 도구적 의존 2.9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과 관련해서는 5점 만점 중 3.44점으로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 결혼을 해야겠다는 의식도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제공 요소, 결혼의향의 경향

| 변수        | M    | SD   |
|-----------|------|------|
| 가족가치관     | 3.61 | .70  |
| 결혼관       | 3.54 | .99  |
| 성역할태도     | 3.10 | 1.13 |
| 자녀관       | 3.67 | .99  |
| 부모자원제공 요소 | 3.12 | 1.08 |
| 정서적자원     | 3.23 | 1.02 |
| 도구적자원     | 2.97 | 1.18 |
| 경제적자원     | 2.98 | 1.11 |
| 결혼의향      | 3.44 | 1.15 |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즉, 월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혼세대의 경제적 자원인 소득 수준이 결혼 가능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안정적인 소득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혼세대의 결혼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제공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는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

| 특성   | 구분      | 결혼의향   |     |   |
|------|---------|--------|-----|---|
|      |         | M      | SD  | D |
| 성별   | 남       | 3.62   | .57 |   |
|      | 여       | 3.56   | .61 |   |
| t    |         | .93    |     |   |
| 연령   | 30대     | 3.54   | .58 |   |
|      | 40대     | 3.42   | .45 |   |
| t    |         | 1.77   |     |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3.60   | .83 |   |
|      | 대졸      | 3.54   | .62 |   |
|      | 대졸이상    | 3.64   | .55 |   |
| F    |         | .63    |     |   |
| 월 소득 | 200만원미만 | 3.49   | .62 | A |
|      | 300만원미만 | 3.53   | .53 | A |
|      | 300만원이상 | 3.75   | .60 | B |
| F    |         | 5.65** |     |   |

\* $p<.05$ , \*\* $p<.01$

는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제공 변인을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는 .25~.98로 잔차(DW)는 1.87~1.96으로 각각 정상범위 1이하와 2에 근접하고 있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서의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부모동거여부를 투입한 결과 '월소득'( $\beta=.21, p<.01$ )에서만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sup>2</sup>은 0.042로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4.2%를 설명하였다( $F=3.60, p<.01$ ). 즉, 본인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을 각각 하위요인별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소득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반면 '연령'( $\beta=.10, p<.05$ ), 가족가치관의 하위 영역인 '결혼관'( $\beta=.72, p<.001$ ), '성역할태도'( $\beta=.10, p<.05$ ), 부모의 자원제공의 하위 영역에서는 '경제적 의존'( $\beta=.11, p<.01$ )이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usted R<sup>2</sup>은 0.577로 2단계에서 설명력은 1단계 보다 53.5%p 증가하여 이 변인들은 결혼의향 변량의 57.7%를 설명하였다( $F=37.83, p<.001$ ). 즉, 미혼남녀의 결혼관,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제공이 많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변인                      | 결혼의향    |         |          |         |
|-------------------------|---------|---------|----------|---------|
|                         | Model I |         | Model II |         |
|                         | B       | $\beta$ | B        | $\beta$ |
| 성별<br>(남성=1, 여성=0)      | .24     | .10     | .03      | .01     |
| 연령                      | .03     | .06     | .04      | .10*    |
| 교육수준                    | -.09    | -.08    | -.08     | -.07    |
| 월수입                     | .28     | .21**   | .09      | .06     |
| 부모와 동거<br>(동거=1, 비동거=0) | .08     | .03     | .11      | .04     |
| 가족가치관                   | 결혼관     |         | .83      | .71***  |
|                         | 성역할태도   |         | .11      | .10*    |
|                         | 자녀관     |         | .05      | .05     |
| 부모의 자원제공                | 정서적자원   |         | -.05     | -.05    |
|                         | 도구적자원   |         | .05      | .04     |
|                         | 경제적자원   |         | .11      | .11**   |
| constant                | 3.51    |         | 1.39     |         |
| Adjusted R <sup>2</sup> | 0.042   |         | 0.577    |         |
| F값                      | 3.60**  |         | 37.83**  |         |

\*p<.05, \*\*\*p<.001

## V.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사회는 미혼세대들을 중심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은 통계자료나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 하나의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미혼세대의 결혼의향을 통해 결혼기피 또는 결혼연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를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도구적·경제적 자원제공이 결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이상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자와 보조연구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족가치관, 부모로부터의 자원제공, 결혼의향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가족가치관의 경우 하위 영역인 자녀관, 결혼관, 성역할태도 모두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자원제공을 받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원제공의 하위영역별로도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의 순으로 나타나 미혼남녀들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측면이나 생활지원 보다도 심리·정서적 부모 의존이 더욱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핵가족에서의 부모 자녀간의 정서적 과정이 반영된 결과로도 이해된다. 또한 연구결과 미혼자들이 높은 결혼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만혼의 경향을 보이는 연령대이지만 결혼에 대한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적 여건이 주어진다면 결혼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가족가치관 중 결혼관과 성역할태도, 부모의 자원제공에서 경제적

자원,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가치관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진미정 외, 2010) 결혼의 동조성이 높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 동조할 때 결혼의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도 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덜 스트레스적인 사건으로 지각하고(이만우 외, 2012)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이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결혼에 대해 규범을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결혼을 생애주기적 발달과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과업을 성취하려는 규범이 결혼의향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한 결혼 및 가족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가족정책 및 미혼남녀의 결혼의 동기를 강화시키도록 돕는 결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Lee외, 2006; 釜野, 2004).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다는 일부 선행연구들(이삼식, 2005; 서지희, 2009)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경제적 변수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되어 후속연구를 통해 결혼의향에 대한 연령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자원제공에서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서구사회와 달리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경우 자녀의 결혼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고선강 외, 2013; 이만우 외, 2012). 그 이유로는 높은 결혼비용과 주거비용 때문으로 이러한 과도한 결혼비용은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결혼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자원제공이 높을 때 결혼의향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노부모의 노후생활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비용을 비롯한 결혼 후 주거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미혼의 미혼자들은 경제적 문제나 결혼비용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결혼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언론매체가 중심이 되어 바람직한 결혼문화에 대한 홍보 및 결혼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화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정된 경제생활과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율의 저하는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저출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정책 및 결혼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연구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제공, 결혼의향에 대한 타당한 개념설정과 측정도구의 정교화를 통해 결혼의향의 영향 요인의 인과관계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측정 문항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 구조화된 분석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지역별 결혼의향 영향 요인은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비교분석을 통해 미혼세대의 결혼의향의 특성이 규명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서울시와 경기지역의 미혼자를 유의적 표집으로 이루어진 제한점을 갖는다. 후속연구는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일반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타당한 표집 대상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앞으로의 결혼의향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정책적 대응에 중요한 기초들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고선강(2011).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한국가정자원경영학회지, 16(2), 103-121.
- 2) 고선강·여성연(2013). 30대 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 3)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세대별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59.
- 4) 김두섭·차승은·천희란·송유진·김정석(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연구: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5) 김승권(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86,6-21.
- 6) 김영순(2013).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자원이전과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 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8) 김태현·임선영(2005).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세대와 성인세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 지, 9(1), 85-109.
- 9) 김태길(1996). 과학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빈곤. 과학과 현실, 28, 185-190.
  - 10)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2007). 미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11) 김혜영·선보영(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12) 문선희(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13) 박혜인(1991). 한국 농촌가족의 부부관계에 대한 가족 발달적 접근.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2, 109-123.
  - 14) 서지희(2009). 미혼취업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생활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서울시 정보화기획단(2012). 통계로 본 서울 남성의 삶. 서울시 통계웹진, 61.
  - 16)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 가족보호고서(미간행). 여성부.
  - 17) 옥선화(1984).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II. 서울 : 교문사.
  - 18) 유흥준·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19) 윤영호(1994). 시집안간 여자? 시집 못간여자! . 서울: 삼진기획.
  - 20)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 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18(1), 89-117.
  - 21) \_\_\_\_ (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7-71.
  - 22) \_\_\_\_ (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갖는 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복지포럼. 102, 25-35.
  - 23) 이만우·김시광·김란영(2012).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4) 이삼식(1993). 한국인의 혼인형태 변화 분석. 한국인구학, 16(2), 84-110.
  - 25) \_\_\_\_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9.
  - 26) \_\_\_\_ (2010). 2010년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과제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59, 66-73.
  - 27) 이삼식·정윤선·김희경(2005). 2005년도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8) 이상준(2007). 독신 여성의 여가 동기, 문화 그리고 만족의 관계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5(1), 131-156.
  - 30) 이영분·최희정·이용우·이화영(2009). 한국 사회의 '부모의존 독신성인'에 관한 기초연구: 규모, 관련요인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연구보고서.
  - 31)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서울 : 학지사
  - 32) 장혜경·김혜영·김혜경·송혜림·윤홍식·이진숙·진미정·김영란·선보영(2005). 가족 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33) 진미정·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34)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 35) 통계청(2010). 2009 혼인통계결과. 통계청



- 36) \_\_\_\_\_(2012). 2011년 혼인이혼 통계. 최근 30년간 초혼초록 자료 통계청.
- 37) 한경혜(1993). 산업화와 결혼연령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24, 103-120.
-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9) \_\_\_\_\_(2010).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40) 홍은영(2011). 미혼성인인의 결혼의향 및 태도와 부모의존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1) Anderson Kathryn H., M. Anne Hill, & J.S. Butler.(1987). Age at marriage in Malaysi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6, 223-234.
- 42) Becker, S. G.(1973). A theory of marriage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813-846.
- 43)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Allyn and Bacon, Inc.
- 44) Goldscheider F. K & C. Goldscheider(1999). The changing transition to adulthood. SAGE.
- 45) Lee, S. S., Jung, Y. S., Kim, H. G., Choi, E. Y., Park, S. G., Cho, N. H., Shin, I. C., Do, S. R., Cho, S. G. & Gang, J. H.(2006). A survey on the marital and fertility trends in 2005. Unpublished manuscript, 14(1), 1-45.
- 46) Sassler, S. & Schoen, R.(1999) The Effects of Attitudes and Economic Activity o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147-159.
- 47) South, S. J.(2001). The variabl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the timing of first marriage; United States, 1969~1993. Social Science Research, 30, 606-626.
- 48) Stein, P. J.(1981), Single life: Unmarried Adults in Social Context, St Martin's Press, New York.
- 49) Thornton, A., W. Axinn, & J. Teachman(1995). The influence of educational experiences on cohabitation and marriage in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762-774.
- 50) 釜野さおり(2004). 「身女性の結婚意欲と出産意欲」. 目依子・西岡八編. 『少子化のジェンダ―分析』. 勁草書房, 107-123.
- 51) 山田 昌弘(1999). 바라사이트싱글시대. ちくま新書.

- 투 고 일 : 2014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4년 7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8월 16일